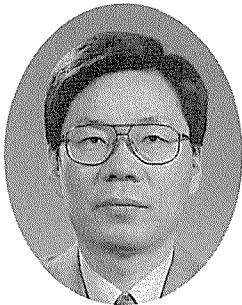


한국경제의 당면과제와 정책방향



강 광 하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국 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1997년에는 우리 경제가 끝을 모르는 추락을 계속하는 듯 하여 많은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합심하여 위기 탈출을 위해 노력한 결과 경제가 회복되고 대외신인도도 올라가고 있으며 환율, 국제수지 등 여러 가지가 호전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런 외형적 회복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현재의 우리 경제가 97년에 비해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고 또 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지표로 본 경제는 별 이상이 없는데 왜 이런 위기의식이 떠오르게 되었을까?

그 이유중의 하나는 기업의 투자를, 생산증가율, 수출증가율, 경제성장률의 둔화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물가상승율, 임금상승율, 수입증가율의 급등 가능성이 다. 이런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 배경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가지만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외부적 요인으로서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다. 이는 공공요금 및 임금 상승으로 연결되어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켜 상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물가 상승으로 경제의 안정기반을 무너뜨릴 위험성이 크다. 또한 수입의 증가로 국제수지 흑자기조의 유지에 악 영향을 준다.

둘째, 금융경색에 의한 기업활동의 위축 가능성이다. 기업활동이 위축되면 성장둔화, 고용감소, 국제수지 적자의 가능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활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들 두가지 요인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원유가격 상승에 대처하여 우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충격의 완화뿐이다. 원유가격이 낮을 때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다가 높아지면 야단법석을 떠는 구태의연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도 뾰족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저 절약밖에 없다는 것이다. 지금 잘잘못을 따져보았자 도움이 되지도 않을 터이니 온 국민이 힘을 합쳐 에너지를 절약할 수 밖에 없다. 원유가격이 곧 내려갈 터이니 그때까지 참으면 된다가 아니라 지금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생각하고 이에 맞추어 생활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그러나 정부는 장기적으로 석유의존도의 감소, 에너지 절약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에 옮겨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급격한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세율조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원유가격 상승이 물가를 자극하여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에너지 정책은 현재의 정부조직에 비추어 볼 때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든지, 아니면 에너지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는 조직운영에 관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금융의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대책이 요구된다. 금융경색의 가능성이 나타나게 된 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이다. 즉 금융구조 조정이 금융의 자금 중개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금융기관의 도산을 방지하는데 있었기 때문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어떻게 금융기관이 홀로 견뎌지고 금융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은행들이 우량은행으로 판정받아 살아남기 위해 신용평가등급이 투기등급, 즉 BBB 이

하로 분류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의 약화는 그렇지 않을 경우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마저 부실케하고, 이에 따라 은행마저 부실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부실자산 정리가 선행되지 않은 금융구조 조정상의 잘못에 있다. 그 동안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책임은 엄격하게 묻되, 부실자산을 충분히 털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는 체제를 하루 속히 만들어야 한다. 즉 은행으로 하여금 과감한 수술, 충분한 자금공급, 그리고 건전한 활동을 보장케 만들 제도와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은행경영이 정상화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 비율 8% 이상과 같은 단순한 지표에 대해서는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인 금융시장 대책에 덧붙여 금융 및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율과 책임, 투명한 기준, 그리고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신속하고 단호한 구조조정 및 개혁만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학문에 왕도가 없듯이 개혁과 구조조정에도 쉽고 편한 길은 없다.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감수해야만 상처를 치료할 수 있다. 그럼으로 우선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앞으로 즐거움을 계속 누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참고 견뎌야 한다. 고통의 분담은 정부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만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필연성을 설득할 수 있다. 정부의 솔선수범과 멋진 수습책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

가을 단상

김민순 | SK(주) 총무팀

한 여름 무더웠던 휴식기를 접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왔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차창 밖을 내다보면 황금물결이 출렁이며 그 사이로 새참을 배달하는 아낙네들도 보인다. 그저그렇게 스쳐지날지도 모르지만 찬찬히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여유로운 모습인지.

고등학교 시절엔 뭐가 그리 좋았는지 낙엽이 튀구는 것만 봐도 까르르 웃어댔었다. 청소시간에 뒷동산에 떨어져 있는 은행잎을 주워다 천정을 향해 뿌리며 손뼉을 치며 좋아했었던 그 시절.

또, 가을이 되면 미술시간마다 교정에 나가 풍경화를 그리곤 했는데 그러도 그러도 질리지 않던 그 풍경들이 지금도 눈 앞에 선하다. 그때는 미술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수다를 떨기에 바빠 그림엔 신경쓰지 않고 가을 풍경에만 빠진 우리들은 선생님 눈치를 보며 그림을 그리는 척했었다. 선생님도 뭐라 하시지 않은 걸 보면 혹시 선생님도 그 가을에 푹 빠져계셨던 것은 아닐까?

가을이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건 코흘리개들도 다 아는 말일 것 같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핀다. (좋은 말이지만 근데 왜 우리는 식욕만이 땡길까?)

또 독서의 계절이고...

그 독서의 계절이 왜 하필이면 가을일까?

날씨가 선선하고 책 읽기에 좋아서? 그건 아닌 것 같다. 날씨가 좋으니 당연 나들이가 많아지고 책을 읽을 여유가(하긴, 책은 여유있을 때에 읽는 것이 아니고 생활이 되어야 하지만) 없어지니까. 다른 계절에 비하면 가을은 오히려 독서량이 20%정도 감소한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여 강제(?)적으로 책을 권장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나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핑계를 두고 책을 읽지 않지만. 또 가을은 문화생활을 즐기기에 더할나위 없이 좋은 계절이어서 가을만 되면 각종 문화소식들이 홍수를 이룬다.

연극공연, 미술전시회, 오페라 기타 등등...

덕수궁 돌담길을 걷다보면 돌담길 저편 아담한 극장에서 들려오는 잔잔한 선율이 귀가 솔깃해진다.

이런 냇두리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말이 나온 김에 오늘 당장 정동극장을 찾아봐야겠다. 95년부터 점심시간 직장인들을 겨냥해 선보인 '정오의 예술무대'에 올려지는 클래식, 재즈, 전통무용, 시물놀이 등 가을내음이 물씬한 작품들을 오늘은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삭막한 도심 속에서 자연의 여유와 포근함을 만끽해보아야지.

가을이 한층 더 내게로 다가오는 것 같다. ♪

추억의 가을 운동회

방현정 | LG-Caltex정유 수급팀

웃음 근 준비를 하면서 늘 듣던 라디오에서 어느 애청자가 보낸 편지를 읽는데 내용인 즉 얼마 전 있었던 아이의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이야기였고,

난 화장대에 앉아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에 웃음 지으며 즐거운 마음에 시간가는 줄 모르다가 결국 지각을 하고 말았다.

내가 기억하는 운동회 때의 모습과 너무도 흡사했기에..

많이 변해버린 지금의 운동회에선 볼 수 없는 옛날의 추억에 향수가 느껴진다.

달리기에서 일등을 하고 공굴리기, 과자 따먹기 등에서 우승을 하면 손등이나 팔목에 도장을 찍어주고, 경기

가 모두 끝나면 도장의 개수에 따라 공책과 연필필통등을 나누어 주었다.

점심시간이 되면 모두들 어머니가 정성들여 만든 김밥과 병에 든 사이다와 콜라 그리고 사과와 배등 과일을 직접 깎아서 먹기도 하고 바카스등 음료수나 김밥을 각자의 담임선생님께 맛을 보여드리느라 선생님 주위엔 실새 없이 아이들이 왔다갔다 했었다. 것처럼 이쁜 모습이 또 있을까?

라디오 애청자가 본 지금의 운동회 점심시간은 예전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고 했다.

학교 정문의 광경..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온다.

모두들 뭐가 그리 귀찮고 바쁜지 글썽 점심시간이 되자 피자 배달 오토바이에 치킨집 오토바이가 줄을 지었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스턴트 시대라 해도 웃지 않을수 없는 광경이다.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지...

점점 사라져가 이젠 볼 수 없는 옛 모습들을 이젠 정말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살아야 하는건가?

요즘들어 인터넷을 통한 각종 동창회가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그러하듯이 그 만큼 모두 팍팍한 생활속에 지쳐 이젠 느끼지 못하는 옛날의 추억을 더듬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얼마전 초등학교 모임에서 3년 선배들과 가을 운동회라는 명목으로 모교에 모여 축구와 발야구, 배구, 족구, 이어달리기등을 했다.

13년만에 모교 운동장을 밟아보니 기분이 이상했다.

이렇게 운동장이 작았던가? 책상과 의자도 모두 축소해놓은 것 같았다.

우린 모두 13년전으로 돌아간 것 처럼 여자 남자 할것 없이 팍팍리며 뛰어 놀았다. 점심으로 직접 만들진 않았지만 김밥과 오뎅국물로 배를 채우고 운동이 끝난후 흡족해지는 모습들이 너무 행복해 보였다.

모두들 말은 안하지만 어린시절 이곳에서 뛰어놀았던

기억에 저렇게 즐거워 하리라 생각했다. 앞으로 13년뒤 그날 모였던 친구들과 다시 모교에서 뿔 수 있길 기대해 본다. ☹

추상 (秋霜)

이경운 | 인천정유 홍보팀 대리

시골의 조그만 초등학교(그 당시는 국민학교 였다)에 다니던 시절이었다. 학교의 갈라진 틈사이로 가끔 쥐들이 산책을 나왔지만, 아주 작고 아름다운 학교였다. 작은 연못이 있었고, 봄에는 운동장 밖으로 모내기하는 농부들이 보였고, 여름이면 하늘을 뒤덮은 플라타나스 그늘에서 더운 줄 모르고 뒹눌 수 있었다. 아마도 그 당시 내 키의 10배는 더 되었을 법한 나무들이었다.

시골 학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가을이었다. 여름 내 농부들의 땀으로 가꾼 벼들이 누런 황금들판으로 일렁거리려 어린 마음에도 풍요로움과 수확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해 주었다. 여름동안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었던 플라타나스는 하나 둘 가을옷으로 바뀌 입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온통 노랑고, 누런 가을 빛을 띠고 있었다.

들판의 벼들이 농부들의 집으로 옮겨질 무렵이면 북쪽에서 조금은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러면 가을옷을 자랑하고 있던 플라타나스들은 하나 둘 그 옷들을 벗겨냈다. 그러다가 바람이 점점 거세지면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든지 한꺼번에 플라타나스잎들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마치 가을하늘이 온통 플라타나스잎으로 덮인 듯한 착각을 일으킬 만큼.

나무는 아쉬움으로 옷들을 벗어내지만 동심들에게는

이 때부터가 즐거운 시간의 시작이었다. 40분 수업이 끝나면 10분간의 휴식시간이 있었는데, 모두들 운동장으로 뛰어나가 바람에 날리는 플라타나스 잎을 잡기에 여념이 없었다. 뭐가 그리 즐거웠는지 깔깔거리며 더 큰 잎을 잡으려고 이리저리 바쁘기만 했다.

중학교 국어시간이었나 유명한 수필가 한 분이 낙엽을 태우며 느끼는 가을의 정취를 노래한 수필이 있었다. 내가 살던 곳은 시골이라서 백화점에 가서 원두커피를 갈고, 가을의 정취를 풍류있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낙엽을 태우는 일과 그 향기에 취하는 일은 그 수필가 못지않게 많이 해봤던 것 같다.

매일 운동장에 떨어진 낙엽들을 모으고, 선생님께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 낙엽들을 태우는 것이 가을날 초등학교 일과의 마지막이었으니까.

내가 다녔던 초등학교에는 지금 예쁜 조카 재인이가 다니고 있다. 현대식 2층 건물로 신축되어 옛날처럼 아담하고 예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지만, 아직도 운동장을 지키고 있는 플라타나스를 생각하며, 조카 재인이가 삼촌이 느꼈던 아름다운 가을정취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

어느 가을날의 여행

손수홍 | S-Oil 수급환경팀대리



만따라 ~ “

“여보세요..... 여보세요.....”

‘딸까닥’ 수화기를 내려놓는다. 꼭두새벽부터 전화해서 암말 없는 사람을 속으로 욕할 무렵, 아주 어슴프레 밝아오는 창 밖으로 전화소리가 아니라 아침을 여는 시계의알람소리임을 깨닫고 누가 들을 새라 얼른 시계로 손을 간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아직 캄캄한 하루가

또 민망하게 시작된다. 침대 위 시트는 금세 조금이라도 더 자라는 악마의 유혹과 어서 일어나 상쾌한 하루를 시작하라는 천사의 독촉으로 곧 악어가 헤엄친 아마존강 물결처럼 되어버리지만, 언제나처럼 난 이 악마의 유혹을 천사의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버리고 만다.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어? 으응. 그래? 어, 알았어. 몇 시? 거기? 어 알아, 그래.”

출근하려고 일어나려는데 이번엔 정말 전화가 왔다. 오늘 날씨도 좋다는데 가까운 곳으로 등산 어떻냐는 친구다. 출근? 오늘은 일요일이란다. 민망한 하루가 시작됐다.

9월의 일요일은 많은 색을 가지고 있다. 7시가 되어서도 뽀얀 푸른 회색빛이더니 청량리역 앞을 지날 무렵엔 북적대는 노랑가방, 빨간 모자, 초록색 등산바지로 단풍이 들어있다. 창 밖은 시원하기 그지없다.

창문을 쭈욱 열었다가 다시 반을 올렸다. 9월 말의 아침공기가 벌써 손이 시렵다. 여유있게 가을을 맛본다며 뽑아 온 책 한 권을 손에 쥐고 괜히 앞장부터 쭈룩 엄지손가락으로 밀쳐보다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 찍은 사진 한 장 앞에서 탁 펼쳐쳐 버렸다.

“어, 이 사진이 왜 여기 있지?”

울퉁불퉁한 시골 황토길 옆 코스모스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몇 살 때던가 하고 거슬러 가다 보니 세상에 난 아직도 내가 어리다라고만 생각했는데 한 이십년은 된 사진이다. 웃음이 났다. 그리고 기억도 났다. 코스모스가 끝도 없이 피어있는 황토길을 가다가 달리는 차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휴지로 밀어 그랬던 파스텔화처럼 멋있을 것 같아서 사진기를 창 밖으로 내밀었더니, 누가 내 속도 모르고 장난치지 말라며 차를 세워버려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 어설픈 폼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이었다. 그 땀 몰랐는데 나와 코스모스 저 뒤로 울긋불긋한 야산도 함께 있었고 어찌나 크게 쓰여 있었던지 내 손에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맨 위에 적힌 프린트물도 들려 있었다. 아마도 독후감 숙제가 적힌 종이였던 듯

싶다. 이십년 전이나 후나 가을이면 어김없는 문구다.
'가을은 독서의 계절'

그래서였을까? 9월이 시작되면서 서점에 들렀다가 특별히 맘에 드는 책이 없어, 그래도 요즘 세상에 베스트셀러 1위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지하며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란 책을 뽑아들고 나왔었는데.....그리고는 며칠 뒤 요즘처럼 빨리 흘러가버리는 세상에 느리고 여유 있는 삶을 찾는 책이 인기라며 이 책에 대한 아침 뉴스를 보기도 했다.

어쩌다가 이 사진이 책갈피로 들어가 있는지 가우똥했지만, 달리는 차 안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뒤로 잡고, 이십년 전 사진 속으로 느린 걸음을 내딛는다. 1년 전에는 내가, 5년 전에는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가을은 어린 시절로 여행을 떠나기에 가장 알맞은 파스텔화였다. ☺

가끔씩 하늘을 보자, 여유를 갖자

고인수 | 현대정유 홍보팀 대리

사 색의 계절, 고독의 계절,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

가을만큼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는 계절은 없다.

떨어지는 낙엽들과, 스산한 바람, 황금색으로 변해가는 들녘, 길가에 한들거리는 코스모스까지 가을이 주는 자연의 색깔과 풍경은 고독과 삶의 의미, 지나간 아름다운 추억을 반추해 주는 묘약같은 분위기를 제공한다.

분명, 가을은 도시생활에 찌들린 우리네에게 삶의 정서를 그만큼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

나 역시 가을의 의미는 돌아갈 수 없는 순수한 동심과 아름다운 이별이 떠오른다.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

을 것 같던 첫 사랑 한 소녀와의 만남과 이별도 붉그스름이 무르익던 가을의 한 자락에 더욱 아련히 떠오르고 어릴적 같이 뛰놀았던 고향 친구들의 모습도 가을 저녁 들판의 한 귀퉁이에서 펼쳐 나올 것 같다.

온갖 말쑤이라는 말쑤는 다 피워도 즐거웠던 어린 시절, 가난해도 情과 따스함이 넘쳐나던 뒷집 영호야, 철수야.... 동네 친구들과 온 동네를 누비며 뛰어 놀다 허기지면 구멍가게에서 잔내나게 폭 익어가던 몇푼짜리 오뎅 한입으로 벌써 우리들은 부자가 됐고 해질녘 집집마다 모락모락 피어올랐던 부뚜막 밥짓는 냄새와 나를 찾던 어머니의 정다운 목소리는 내 가슴 깊은곳 보물상자에 놓아둔 아름다운 기억들이다. 적어도 대학교때까지는 그랬다.

지금은 직장생활을 한지 벌써 5년이 넘어 일에 어느정도 이력도 붙고 바쁜 이유로 예전의 이런 추억들이 희미해져 버렸고 추억을 되새김질할 겨를도 없다. 물론 사회생활에 너무 젖어버린 탓일까?,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탓일까?

하지만 요즘 이런 나를 다시 예전의 순수한 감상으로 이끌어준 사람이 있다. 바로 말도 못하고 웅알거리는 이제 2살난 나의 예쁜 딸아이. 바쁜 회사생활 와중에서도 가을이 오면 나는 매주 가족과 친구가족을 데리고 인근 산과 강 그리고 들녘에 자주 나들이를 간다.

내 딸아이에게도 도시생활의 각박함 보다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맑은 기운과 가을의 향기를 보여주고 싶기 때문이다. 도시생활의 각박함 보다는 훗날 자신이 어른이 됐을 때 아름다운 가을의 추억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말이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이 가을, 가까운 이가 곁에 있다면 인근 산이라도 좋으니 한번 떠나보자. 순수한 동심으로 돌아가 보자. 가끔씩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바라보자. ☺